

롯데면세점, 美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데이비드 율만' 입점

등록 2022.12.23 08:40:31



롯데면세점이 23일 국내 최초로 미국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데이비드 율만'을 롯데인터넷면세점 명품관에 론칭하며 다채로운 컬렉션을 선보인다. (제공 = 롯데면세점) 2022.12.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해원 기자 = 롯데면세점은 미국 하이엔드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데이비드 율만(DAVID YURMAN)'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데이비드 율만'은 이날 인터넷면세점 명품관에서 론칭된다. 조각·도예가인 데이비드·시빌 율만 부부가 1980년 미국 뉴욕에서 탄생시킨 '데이비드 율만'은 독창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스칼렛 요한슨, 브래드 피트, 헨리 골딩 등 유명 배우들에게 사랑받으며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로 성장했다.

다양한 굵기의 나선 모양을 살린 '케이블(Cable)' 컬렉션이 대표적이며, 실버 상품부터 섬세한 세공이 돋보이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상품 등 다양하다.

여기에 롯데면세점은 최근 패션 트렌드인 성별 경계가 없는 '젠더리스 룩'을 반영해, 체인, 버클 형태의 데이비드 율만의 팔찌와 목걸이를 중심으로 남성 주얼리 라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 중심의 주얼리 시장에서 데이비드 율만의 남성 컬렉션은 모던한 디자인을 내세우며,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 남성 고객들에게 웨어러블 주얼리로 각광받고 있다.

나아가 현재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 구현하고 있는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데이비드 율만 컬렉션에도 적용해 고객들의 온라인 쇼핑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